

시험소설립경과 및 전망

정 대 춘
 〈시험소 개발부장〉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복잡 대형화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의 등장에 따른 국민생활의 획기적인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들은 각종 산업재해를 증대 시켰고,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담보위험의 거대화 내지는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생활에 큰 위협으로 대두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위협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 2월6일 “화보법”을 제정하여 안전점검을 주업무로하는 방재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해야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1978년 3월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 재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목적물의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한 경영효율화와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방재시험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실험을 통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하게 되었으며, 2년후인 80년7월에는 방재활동의 조기강화를 위해 방재시험소를 설치운영하라는 감사원의 조치 결과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배경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

인 후원과 정부당국의 지원하에 총 47억원 규모의 방재시험소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80년 12월 31일자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은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인 이 업무의 방향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립준비를 위하여 '81년도 초부터 '85년도까지 한국과학기술원등 국내 20여개의 시험연구기관과 미국, 영국, 서독, 일본등 해외 5개국의 대표적인 11개 방재시험연구기관의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10회에 걸쳐서 KAIST 원장등 사계의 권위자 108명 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거쳐 방재업무수행을 위한 제반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설립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82년 8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현 위치에 부지 3만1천여평을 마련하고 동년12월에 23명의 인원으로 방재시험소 설립추진본부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설립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시험소의 건물규모는 연건평 2천1백42평 규모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시험동의 신축은 시험연구소의 설계기술상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하고 우선 1차로 본관, 시험동 및 부속건물등 1천 1백95평을 '84년

9월 30일에 완공 하였으며, 2차로는 최신시험설비를 장치한 스프링클러 살수시험동, 방내화시험동등 9백47평을 '85년 9월 30일자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당 시험소에 설치된 시험설비로는 항온항습조 등 기초시험설비 69종, 벽용로등 방내화시험설비 6종, 연소시험설비 13종, 경보·소화설비등 45종, 총 133종의 국제수준의 현대식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와같이 당초계획된 건물과 시설을 확보하고 '86년 4월 11일 재무부장관을 모시고 방재시험소 개소식을 갖었습니다.

방재시험소 에서는 멀지않은 장래에 선진국 수준의 전문방재연구기관 으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 걸쳐 이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제1차 단계에서는 방재시험연구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등 시험소업무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선 방재시험소의 공인 시험연구 기관화를 중점 추진 할 예정입니다.

방재시험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기본업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예정인 건축자재와 소방용품등의 국가인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험연구기반이 확립된 시점이므로 소방 및 건축재료 뿐만 아니라 각종 방화관련 제품의 성능시험을 통한 분석 연구로 시설의 개선대책과 안전관리등의 향상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시험을 통한 본격적인 응용연구를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이와같은 응용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험단체와 각종재해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방재인력의 기술교육업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방재기술자료의 보급도 더욱 확대하여 소방설비에서부터 대형프랜트의 방재대책수립에 필요한 국내실정에 맞고

내실있는 자료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단계에 가서는 재해 유형별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연구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용품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질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수준 높은 생산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단계로서 일본·미국등 선진국의 방재시험연구소와 유사한 국가방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물론 손해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 따라야 될 것으로 보며 시험연구인력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재시험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달성될 경우 미래의 역할은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방재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적절한 방재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소방시설 등을 질적으로 대폭 개선하여 산업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상당수 예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보험목적물의 위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기법 등을 개발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거대해지고 있는 담보위험에 대한 보유의 적정화 유도로 보험의 국제수지를 대폭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안정발전을 이룩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각종 방화제품은 물론 전기제품등 화재와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의 정밀 안전도·성능 시험과 품질검사를 통하여 우수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수출상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넷째, 방재에 관한 우수한 선진 외국의 방재자료와 국내의 각종 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방화관리자등 방재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여 현장 방재관리의 강화를 도모

함은 물론 전문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숙련된 방재기술자를 양성 배출하는 방재교육기능의 담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비록 적은 투자액으로 한정된 방재분야를 시험하고 그 설립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본 시험소 설립으로 국내의 방재분야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문을 열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과 정부당국, 보험회사등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시험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국가방재와 국민민복을 위한 철저한 봉사와 손해보험업계의 안정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